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자본시장법 시행, 다양한 ETF 상품개발이 가능

- 현재 선진 외국에서는 연동대상 자산 범위 확대 및 운용구조가 다변화된 신종 상장지수펀드(ETF : Exchange Traded Fund)가 출시되고 있는 반면, 한국거래소(KRX)에서는 주가지수에 따른 주가지수연동형 ETF만 거래되고 있음.
 - 주요국의 ETF시장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70%, 유럽 20%, 아시아권 등이 10%(일본이 274억 달러로 아시아권에서 최대)를 차지하고 있으며, 자유로운 신상품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 시장성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음.
 - 반면, 우리나라는 총 38개 펀드의 주가지수연동형 ETF가 거래되고 있고 수탁고(NAV)는 '09.1/4분기 기준으로 3.2조원이며, 일평균 거래규모는 1,266억원 수준임.

- 그러나,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채권 ETF, 실물상품(Commodity) ETF 등 다양한 ETF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됨.
 - 주가지수 등 금융관련 지수 이외에 금·원유와 같은 개별 실물상품 등에도 연동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, 지수와 동일한 방향으로 연동하는 ETF 이외에 지수와 반대로 연동되는 ETF 상품개발이 가능해짐.
 - 또한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 이외에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의 요건을 신설할 예정임.

- 관련 업계는 최근 시장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국고채 ETF 등 신종ETF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, 국고채 직접투자(통상 100억 단위 거래)에 비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액 개인투자자, 외국인 등의 투자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.
 - 이로써 국고채 발행 및 유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, 그 외 기초자산이 실물상품인 ETF, 운용구조가 다변화된 ETF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함.

- 이에 정부는 신종 ETF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5월까지 '금융투자업규정' 개정을 추진, 자본시장법 등 법규 정비사항이 반영되도록 거래소 '상장/업무규정'을 정비할 계획임.

(‘국고채 ETF’ 등 신종 ETF 활성화 추진,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실 자본시장과, 자산운용과, 4/9)